

# 鄭玄『箋』의 正變論 小考

— 『毛傳』과 비교중심으로

조 혜진 (전남대)\*

## 【목 차】

1. 緒論
2. 正變說의 발전 및 그 특징
  - 1) 西漢의 정변설 시작
  - 2) 漢唐의 정변설 계승과 발전
  - 3) 宋代이후의 정변설 재분류
3. 鄭玄의 『詩』 正變解釋 具體化
  - 1) 正-正風正雅
  - 2) 變-變風變雅
4. 結論

## 1. 緒論

東漢時期 鄭玄이 詩經을 주해한 『箋』은 모시해석체계인 『毛詩序』, 『毛詩故訓傳』(毛詩詁訓傳이라고도 함)의 해석중심으로 하여 발전했는데, 시경학사에 있어서 큰 변화는 『모전』의 ‘興’<sup>1)</sup>, 『서』의 ‘美刺’<sup>2)</sup>과 ‘正變’을 발전하여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三家詩를 겸용하고, 禮를 중시하여 예로써 시를 해석하였다. 이는 정현의 해석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중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정변’은 『서』의 『風』과 『雅』를 ‘正’과 ‘變’을 구분한 ‘風雅正變’에서 비롯되었고 시경연구사에 영향이 매우 크다. ‘風雅正變說’은 詩歌 작품과 사회·정치 작용을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써 傳統 儒家的 詩論 체계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3)</sup> 『시경』의 작품을 이런 ‘正變’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정변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아울러 정현의 ‘정변’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탐색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毛詩』 해석과 비교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정현은 어떤 방식으로 정변을 구분했으며 모시해석체계와는 어떻게 다른지, 『정전』 해석까지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드러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반영된 漢代 학자들의 사유방식을 추적할 수 있다.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수료(zhaolaoshi86@daum.net)

1) 오만종 조혜진, 「鄭《箋》興意의 探討」, 中國人文學, 제 71집, 2019, 참고

2) 조혜진, 「鄭玄《箋》의 美刺論小考-《毛傳》과 비교-」, 2020년도 중국인문학회 춘계연학학술대회, 2020, 참고

3) 夏傳才, 『詩經研究史概要』「漢學《詩經》研究的鬪爭和發展」, 清華大學出版社, 2007.p.67

## 2. 正變說의 발전 및 그 특징

### 1) 西漢의 정변설 시작

- 『모시서』의 『風』·『雅』正變-시가와 정치관계 논술

유가경전으로서 『시경』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왔다. 특히 『모시서』에서 시가와 시대정치의 관계를 논술했는데 ‘풍아정변설’을 이용하여 시가가 정치의 興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정풍정아』는 盛世政治의 清明한 反映이고, 『변풍변아』는 쇠하게 되어 정치강령이 파괴된 反映이다. 단순히 정치관점으로 해석하면 몇 비정치시의 내용에 대해서도 곡해할 수밖에 없다. 후에 유가들이 시를 해석하는 것은 ‘풍아정변설’에 따라 비정치적인 시들까지 모두 정치적인 내용으로 견강부회하였다.<sup>4)</sup>

### 왕도의 흥쇠에 따른 구분-성세정치의 시·난세정치의 시

『모시서』에서 왕도가 쇠한시기에 『변풍변아』가 지어졌고, 그것을 통치자가 보고 정교를 바르게 하여 나라를 잘 다스려야한다고 말한다.

“왕도가 쇠하여 지금에 이르러 예의가 폐지되고 정교가 실추되고 제후국이 각기 다른 정치를 하고 세가들이 각기 다른 풍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풍』 『변아』가 지어지게 됐다. 국사들이 정치의 득실을 잘 밝혀서 인륜이 폐지됨을 슬퍼하고 형벌정치의 가혹함을 애달파하며, 백성들의 성정들을 노래로 읊어서 통치자들을 풍자함으로써 그 통치자로 하여금 세태가 변했음을 깨우치게 하여 <태평성대의> 옛 풍속들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게끔 한 것이다. (至于王道衰, 禮義廢, 政教失, 國異政, 家殊俗, 而《變風》《變雅》作矣。國史明乎得失之迹, 傷人倫之廢, 哀刑政之苛, 吟詠情性, 以風其上, 達于事變而懷其舊俗也。)”

『변풍변아』가 지어진 때는 왕도가 쇠한 시대, 예의가 폐한 시대, 정교가 바르지 못한 시대, 각국의 정치가 다른 시대이다. 왕도가 쇠하여 예의가 폐지되고 정교가 실추하면, 제후국은 각기 다른 정치를 하고 세가들은 다른 풍속을 가지게 된다. 왕도가 쇠하고 예의가 쓸모없어지고 정교를 잃어버려서 나라에 정치가 달라지고 가정에 풍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풍변아』가 지어진 것이다. 『변풍변아』가 지어진 때에는 백성들이 인륜의 폐지됨을 슬퍼하고, 형벌정치의 가혹함을 애달픔을 읊기 때문에 그것을 국사는 잘 밝혀서 통치자에게 세태가 변했음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통치자가 『변풍변아』를 듣고 선왕이 정치를 했던 시기를 그리워하게 하여 『정풍정아』가 지어진 때인 왕도가 흥하고, 예의가 서고, 정교

4) 夏傳才,《詩經研究史概要》<漢學《詩經》研究的鬪爭和發展>, 清華大學出版社 ,2007.p.68

가 바르고 각국의 정치가 같은 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전 좋은 때를 찬미하거나 안 좋았을 때의 나쁜 상황을 들어 풍자한 것이다. 왕도가 흥하고 쇠함에 따라 국가가 세워지거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왕도정치를 해야한다. 왕이 덕으로써 따르게 하여 정교를 바르게 하며 천하가 안정할수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바는 도덕이고, 집안이 망하는 바는 다스린 바가 막혔기 때문이다.<sup>5)</sup> 국가의 존망이 왕도에 있으므로 시로써 백성의 뜻을 잘 살펴서 나라를 보존할수 있도록 선왕의 법도로 잘 다스려야 한다.

### 以音听治 -采詩를 통한 정교의 득실-치세의 음·난세의 음

백성들이 시를 지어 부르는 음악을 통해서 그 정치의 흥하고 쇠한 것을 알아야 한다. 시는 백성들의 뜻을 기술하고, 음악은 백성들의 시를 노래하므로 時政의 선과 악이 음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자가 순수하여 태사에게 명하여 시를 진열하게 하여 민풍을 살피는 것이다.<sup>6)</sup> 왕자가 채시관을 두어 나라의 풍속을 관찰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알아 스스로 바로잡는다.<sup>7)</sup> 사람들의 교화됨을 그나라의 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온유돈후하면 교화된 것이고, 교화가 잘된 것은 잘 다스려진 것이다. 8) 잘 다스려진 때의 음인 치세의 음을 통해서 왕도의 흥한 것을, 난세의 음을 통해서 왕도가 쇠한 것을 알 수 있다. 시가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한다. 『모시서』는 ‘审樂以知政’의 관정을 취하여 시대에 따라 달리 지어진 시가를 설명하고 있다.

시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가슴속에서 움직였다가 그게 언어로 형상화되는 것인데, 말로도 표현하는 감정이 다 표현하는 게 부족하여 탄식하게 된다. 탄식한 것도 부족하여 소리 내어 노래 부른다. 소리 내어 노래 부르는 것도 부족하면 손발로 춤을 추게 된다. 감정은 소리로 들어나고, 소리로 들어난 것들이 문양을 이루며, 그것을 보고 음이라고 한다. 잘 다스려진 세상은 편안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정치가 조화로움을 알 수 있다. 난세의 음은 원망과 분노가 드러나기 때문에 괴리되었다. 망국의 음은 슬픔과 애달픔 그리움을 들어내니. 백성이 곤궁 그러니 시가에 표현된 노래는 백성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치의 득실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귀신들을 감화시킨데 있어서 시보다 더 절실한 게 없다. 『모시서』(《詩》者, 志之所之也。在心為志, 發言為詩, 情動于中而形于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噫歎之不足, 故詠歌之, 詠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情發于聲, 聲成文謂之音, 治世之音 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 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 哀

- 
- 5) 《淮南子·氾論訓》:国之所以存者, 道德也; 家之所以亡者, 理塞也。
- 6) 《禮記·王制》:天子五年一巡守 歲二月 東巡守 至于岱宗 柴而望祀山川 觀諸侯 問百年者 就見之 命大師陳詩 以觀民風.『漢書·食貨志』孟春之月 群居者將散 行人振木鐸徇于路以采詩 獻之太師 比其音律 以聞於天子 故曰王者不窺牖戶而知天下.周代의 采詩官은 바로 太師이다. 악관인 태사가 시를 채집하고 정리하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제목과 장구 내용의 개요를 간단하게 붙여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 7) 《漢書·藝文志·六藝略》:古有采詩之官 王者所以觀風俗知得失 自考正也。
- 《毛詩正義·疏》:此文特言國史者, 鄭答張逸云 “國史采衆詩時, 明其好惡, 令瞽矇歌之, 其無作主, 皆國史主之, 令可歌.” 如此言, 是由國史掌書, 故託文史也. 苛能制作文章, 亦可謂之爲史, 不必要作史官.
- 8) 《禮記·經解》:孔子曰「入其國, 其教可知也。其為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其為人也: 溫柔敦厚而不愚, 則深於《詩》者也;」

以思 其民困。。故正得失，動天地，感鬼神，莫近于詩。)

치세의 음은 정치가 잘 다스려진 시기의 음악이므로 편안하여 즐겁고, 그 정치가 조화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세의 음은 정치가 잘 다스려지지 않은 시기의 음악이므로 원망하여 분노하니 그 정치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난세의 음이 비록 정치가 잘 다스려지지 않았지만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으니 『변풍변아』가 지어졌다. 하지만 망국의 음은 이미 나라가 없어졌으니 애처로워 그리워하니 그 백성들이 곤경에 빠졌기 때문에 시경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변풍』이 『시경』에 남아있는 이유는 『변풍』은 백성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지만 선왕들의 은택이 있어 예와 의에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변풍』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감정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예와 의에 멈췄다.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나는 것은 백성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고, 예와 의에 멈춘 것은 선왕들의 은택이 있었기에 예와 의에 멈쳤다는 것이다. 한 제후국들의 일로써 한 개인의 감정이 표현해낸 것 근본에 떠어있는 것을 『국풍』이라 한다. 천하의 일을 말하고 각 사방의 풍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 『아』라고 한다. 왕도정치가 그것으로부터 폐하거나 흥 할 수 있는 바를 말한다. 정치에는 크고 작은 것 이 있기 때문에 『소아』와 『대아』가 있다. 『송』은 통치자의 성대한 덕의 모습을 찬미한 것이다. 신명들에게 그가 이룬 공으로써 알리는 것이다. 『모시서』(故《變風》發乎情，止乎禮義。發乎情，民之性也；止乎禮義，先王之澤也。是以一國之事，系一人之本，謂之《風》；言天下之事，形四方之風，謂之《雅》。雅者，正也，言王政之所由廢興也。政有大小，故有小雅焉。頌者，美盛德之形容，以其成功告于神明者也。)

시를 통해서 교화를 알 수 있는데, 시가 예와 의에 멈쳤다는 것은 예와 의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았으니 선왕의 은택이 있다는 것이고 선왕의 교화의 결과이다. 선왕의 교화로 인해 예와 의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변풍』은 제후국의 일로써 통치자로 하여금 세태가 변했음을 깨우치게 하여 옛풍속을 그리워하게 하는 시이다. 『변아』는 천하의 일로써 통치자로 하여금 세태가 변했음을 깨우치게 하여 옛풍속을 그리워하게 하는 시이다.

『국풍』은 한 제후국들의 일로써 한 개인의 감정이 표현해낸 것이므로 개인의 서정을 통해 뜻을 말하여 한 지역의 정교와 풍속을 반영한다. 9) 그 중 『周南』과 『召南』은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이다. 선왕의 교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정풍』이다. 『雅』는 천하의 일을 말하고 각 사방의 풍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 자체가 ‘정(바름)’이고, 『아』라는 것은 『풍』보다 범위가 넓은 천하의 일을 말하고 각 사방의 풍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도정치가 그것으로부터 폐하거나 흥 할 수 있는 바를 말한다. 국가정치의 治亂興衰를 반영한 것이므로 10) 『풍』과 『아』를 통해 천자에게 왕도의 정치가 폐하거나 흥한 것을 통해 세태가 변했음을 고하는 것이다. 『송』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성

9) 夏傳才,《詩經研究史概要》<漢學《詩經》研究的鬪爭和發展>, 清華大學出版社 ,2007.p.68

10) 夏傳才,《詩經研究史概要》<漢學《詩經》研究的鬪爭和發展>, 清華大學出版社 ,2007.p.68

대한 덕의 모습을 찬미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들에게 그가 이룬 공으로써 알리는 것이다. 공덕을 찬미하거나 신명을 고하는 종묘제사시가이다. 11) 『송』은 제사에 쓰이는 노래이므로 『풍』과 『아』를 통해 천자에게 왕도의 정치가 패하거나 흥한 것을 통해 세태가 변했음을 고하는 것이다. 시를 통해 왕도의 흥쇠를 알 수 있고, 통치자를 깨우칠 수 있는데, 선왕의 법도로 잘 다스린다면 『정풍정아』가 처음 왕도가 흥한 때의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백성들이 시를 지어 노래하는 음악을 듣고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잘 다스려진 것이다. 음악을 듣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음을 듣고 실정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왕이 巡狩와 采詩하여 시를 노래하는 것을 듣고 정치하는 것은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린 것이다.

## 2) 漢唐의 정변설 계승과 발전

### - 『모시서』의 정변해석을 근거로 부연설명

漢代에 경이란 길이고, 길이 통하지 않는 바가 없듯이 항상 쓸 수 있는 것과 같다. 12) '경'이라는 것은 근본을 전해주는 것이고, 다 통함으로 언제나 쓸 수 있는 것이다. 시경을 해석할때에 앞 시대의 것을 참고했는데, 시경에 대한 각종 해석을 포괄하여 새로운 시해석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東漢의 정현이 『모시서』에 근거하여 왕도의 흥쇠와 정교의 득실을 세차별로 구분하였다. 이후 육덕명과 공영달은 '疎不破注'의 원칙을 준수하여 『모전』과 『정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모전』과 『정전』의 주장을 각각 그대로 정리하여 부연설명한다. 광범위한 인용서를 통해서 經文과 『傳』, 『箋』에 대하여 인용된 용어 전적, 거론된 역사사실에 대하여 철저하게 고증하고 그를 근거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풍』의 『이남』의 「관저」에서 「추우」까지 25편은 『정풍』이며, 『패풍』에서 『빈 풍』까지 135편은 『변풍』이다. 13) 문왕에서 성왕 주공의 시대까지의 시가 『정풍정아』이고, 『소아』의 「육월」부터 「하초불황」의 58편을 『변소아』, 『대아』의 「민로」부터 「소민」의 13편을 『변대아』라고 하여 총칭 『변아』이다.<sup>14)</sup> 唐代에도 『모시서』와 마찬가지로 『변풍변아』는 왕도가 쇠퇴해지고 정교가 실추되었지만 바로잡아 회복 가능하다고 본다. 옛 법도를 행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 군주가 스스로 뉘우쳐 '정도(正道)'를 따르길 바라며 '변시'를 지은 것이라고 말한다.

위에서는 變詩가 지어짐을 말하였고 여기에서는 또 變詩를 지은 이유를 말하였으니, '나라의 사관은 모두가 학식이 풍부하고 기억이 뛰어난 자로 임금의 잘잘못과 선악의 자취를 환하게 알았다. 예의가 무너지면 인륜이 문란해지고 정교가 실추되면 법령이 가혹해지니, 사관

11) 夏傳才,《詩經研究史概要》,<漢學《詩經》研究的鬪爭和發展>, 清華大學出版社 ,2007.p.68

12) 《釋名·釋典藝》:經，徑也。如徑路無所不通，可常用也。

13) 《經典釋文》：“國者，總謂十五國；風者，諸侯之詩。《詩·邶風·柏舟詁訓傳》：從此訖《幽·七月》，十三國並變風也。七世至頃侯 當周夷王時 衛國政衰 變風始作“故作者各有所傷 從其國本而異之爲邶.鄘.衛之詩焉 王道衰，諸侯有變風；王道盛，諸侯有正風。”

14) 《詩·小大雅譜》：《大雅·民勞》、《小雅·六月》之後，皆謂之變雅。《毛詩正義·疏》：《勞民》、《六月》之後，其詩皆王道衰乃作，非制禮所用，故謂之變雅也。

이 인륜이 무너지고 사라짐을 마음 아파하고 형벌의 가혹함을 슬퍼하였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뜻이 마음에 쌓여 마침내 자신의 性情을 艷조려 君上을 풍자하여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기를 바란 것이 變詩를 지은 이유'임을 말한 것이다. 國史는 周官이니 大史·小史·外史·御史 등이 이들인데, 이를 『變風』과 『變雅』의 아래에 이어서 말했으니, 천자와 제후의 사관이 모두 해당된다. '得失之迹'은 임금의 지난 행적이니, '得失之迹'을 분명하게 알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여 뜻을 艷조린 사람은 시인이지 사관이 아니다. 『大雅·民勞』와 「常武」는 公卿이 지은 것이고 『小雅·黃鳥』와 『衛風·碩人』은 백성의 시이다. 그렇다면 신하와 백성이 다 풍자할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사관이 지은 것이라 여길 필요는 없다. 『모시 정의』<sup>15)</sup>

"난세의 정교는 민심과 어긋나므로 백성들이 그 정교를 원망하여 분노한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따라 노래를 만들므로 난세의 음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小雅·蓼莪』에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해를 입는가." 하였으니 지극히 원망한 것이고, 「巷伯」에 "남을 참소하는 사람 잡아다가 승냥이나 호랑이에게 던져주리." 하였으니 매우 분노한 것이며, 「十月之交」에 "우리 담장과 지붕을 걷어내고 밭은 웅덩이와 쑥대밭이 되었네." 하였으니 정사가 어긋난 것이다. 나라가 망하려 하면 백성들이 곤액을 당해 자신의 신세를 슬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治世를 그리워한다. 그 슬프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따라 노래를 만들므로 망해가는 나라의 음도 슬프고 그리워하는 것이다. 「苕之華」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태어나지나 말걸." 하였으니 매우 슬퍼한 것이고, 「大東」에 "고개를 돌려 그 길을 돌아보며 줄줄 눈물을 흘리노라." 하였으니 그리움이 간절한 것이며, 「正月」에 "지금 백성들이 복이 없어 하늘이 해를 내려 해치도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곤궁한 것이다. 시는 백성들의 뜻을 기술하고, 음악은 백성들의 시를 노래하므로 時政의 선과 악이 음에 드러난 것이다." 『모시 정의』<sup>16)</sup>

『변풍변아』는 '변시'로써 백성이 아직 예를 알기에 예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왕도가 처음 쇠퇴해지고 정교가 처음 실추되었지만 바로잡길 바라며 백성이 이를 노래한 것이다.

### 3) 宋代이후의 정변설 재분류

#### - 『모시서』 비판과 시가의 시체나 음악성으로 포폄

15) 上既言變詩之作，此又說作變之由，言國之史官，皆博聞強識之士，明曉於人君得失善惡之迹，禮義廢則人倫亂，政教失則法令酷，國史傷此人倫之廢棄，哀此刑政之苛虐，哀傷之志，鬱積於內，乃吟詠己之情性，以風刺其上，覲其改惡爲善，所以作變詩也。國史者，周官，大史·小史·外史·御史之等，皆是也。此承變風·變雅之下，則兼據天子諸侯之史矣。‘得失之迹’者，人君既往之所行也。明曉得失之迹，哀傷而詠情性者，詩人也，非史官也。民勞·常武，公卿之作也。黃鳥·碩人，國人之風，然則凡是臣民，皆得風刺，不必要其國史所爲。

16) 亂世之政教，與民心乖戾，民怨其政教，所以忿怒。述其怨怒之心而作歌，故亂世之音，亦怨以怒也。蓼莪云“民莫不穀，我獨何害”怨之至也。巷伯云“取彼譖人，投畀豺虎”怒之甚也。十月云“徹我牆屋，田卒汙萊”是其政乖也。國將滅亡，民遭困厄，哀傷己身，思慕明世。述其哀思之心而作歌，故亡國之音，亦哀以思也。苕之華云“知我如此，不如無生”哀之甚也。大東云“睠言顧之，潸焉出涕”思之篤也。正月云“民今之無祿，天夭是椓”是其民困也。詩述民志，樂歌民詩，故時政善惡見於音也。

漢代부터 唐代까지 『모시서』의 왕도의 흥쇠에 따라 정변이 나눠진다고 여겼지만, 宋代부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宋代는 訓詁보다 義理가 더욱 중요했던 시기이다. 漢唐의 훈고적인 기준 해석방법에서 벗어나 각자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南宋에 이르러 먼저 鄭樵<sup>17)</sup>가 『모시서』에만 기록되어있는 정변설을 반박하고 『모시서』의 설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후 宋儒는 시가 작품을 악장의 연주 방식 등에 의거하여 正詩·變詩로 재분류하였다. 程大昌이 시경이 전부 음악에 맞추어 부르는 樂歌가 아니라고 반박하기 시작했는데 ‘입악’과 ‘불입악’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sup>18)</sup>악가란 악기 반주가 있는 노래로 악곡을 치창하기도 한다.<sup>19)</sup>‘악시’는 ‘정시’를 말하며, ‘도시’는 ‘변시’로써 악기 반주가 없는 노래이다.<sup>20)</sup>‘樂詩’와‘徒詩’에 따라‘正詩’·‘變詩’로 구분하였다. 朱熹·顧炎武 등으로 그 說의 맥을 이어갔다.<sup>21)</sup>그러나 詩는 전부 入樂이므로 俞正燮·馬瑞辰·皮錫瑞·康有爲·顧頡剛은 이 설에 대해 반대하였다.<sup>22)</sup>시경의 시 모두 악가로 보았다.<sup>23)</sup>한대부터 당대까지는 이견 없이 모두 시경이 수록된 전부를 악가라고 여겼다. 先秦兩漢 史籍인 『史記·孔子世家』<sup>24)</sup>『墨子·公孟篇』<sup>25)</sup>『左傳·襄公二九年』<sup>26)</sup>『漢書·食貨志』<sup>27)</sup>『鄭風·子衿』<sup>28)</sup>에 기재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시경의 시 모두 樂歌임은 틀림없다. 김수경이 말한 것과 같이 詩歌 樂律을 중심으로 正聲과 變聲을 나누어 『風』 · 『雅』 正變에 적용하고자 하는 견해는 南宋에 戴埴

17) 鄭樵,《六經奧論·風非有正變辯》卷三,《欽定四庫全書》,p.105-109.

18) 夏傳才,《詩經研究史概要·詩入樂說和風雅正變》,清華大學出版社 .2007.p.15-18.

19) 亦作“樂謌”。有樂器伴奏的唱歌。亦泛指歌曲。《儀禮·大射禮》“乃歌「鹿鳴」三終” 漢 鄭玄 注：“鹿鳴，《小雅》篇也。人君與臣下及四方之賓燕，講道脩政之樂歌也。” 南朝 梁 劉勰《文心雕龍·聲律》：“聲含宮商，肇自血氣，先王因之，以制樂歌。” 宋 曾鞏《王平甫文集·序》：“世皆謂 平甫 之詩宜爲樂謌，薦之郊廟。”《宋史·樂志一》：“至 唐 有事太廟，每室樂歌異名。”

20) 徒歌:古代史傳中還有一些不在三百篇之內的“徒歌”.例如《左傳·宣公二年》記載宋國將軍華元被鄭國人提了去，後來逃回來，人民譏笑這位敗軍之將，做了一個歌兒對他唱。這樣的歌，從性質上說和“獻詩陳志”沒有什麼分別。無樂器伴奏的歌。《爾雅·釋樂》：“徒吹謂之和，徒歌謂之謠。”《晉書·樂志下》：“凡此諸曲（「子夜歌」、「鳳將雛」等），始皆徒歌，既而被之管弦。” 清 納蘭性德《渌水亭雜識》卷二：“唯人聲而無八音謂之徒歌，徒歌曰謠。”南朝 宋 顏延之《直東宮答鄭尚書》詩：“跂予旅東館，徒歌屬南墉。” 朱自清《朗讀與詩》：“詩出於歌，歌特別注重節奏；徒歌如此，樂歌更如此。”不過士大夫獻詩，是特地做了樂工唱的；庶人的作品則先是在社會上流傳，給采訪詩歌的人收集去了，才配上樂曲，達到統治階段的耳中。在人民群眾的生活裏，徒歌也是常用於表情達意的。

21) 程大昌,《詩論·南雅頌爲樂詩,諸國爲徒詩篇》,叢書集成初編本,北京,中華書局,1985.

朱熹,《詩集傳》,『四庫全書』,文淵閣本.

顧炎武,《日知錄》卷三:“詩序《詩》之世次必不可信，今《詩》亦未必皆孔子所正。”

22)

23) 夏傳才《詩經研究史概要·詩入樂說和風雅正變》,清華大學出版社 .2007.p.15-18.

24) 《史記·孔子世家》三百五篇孔子皆弦歌之，以求合韶武雅頌之音。

25) 《墨子·公孟篇》子墨子謂公孟子曰：…誦詩三百，弦詩三百，歌詩三百，舞詩三百。

26) 《左傳·襄公二九年》吳公子劄來聘…請觀於周樂，使工爲之歌周南召南，…爲之歌鄖，墉，衛，…爲之歌王，…爲之歌鄭…爲之歌齊。…爲之歌豳，…爲之歌秦，…爲之歌魏，…爲之歌俞正燮,《癸巳存稿·詩入樂》,北京大學圖書館,影印本.

馬瑞辰,《毛詩傳箋通釋》,中華書局,1989.

皮錫瑞,《經學通論·詩經》,中華書局,1954.55.

康有爲,《新學偽經考》,『蟄雲雷齋』本.

顧頡剛,《古史辯·論詩經所錄全爲樂歌》第三冊.唐。…爲之歌陳。…。爲之歌小雅曰，…爲之歌大雅，…爲之歌頌，

27) 《漢書·食貨志》 孟春之月，群居者將散，行人振木鐸徇於路，以采詩，獻之大師，比其音律，以聞於天子。故曰王者不窺牖戶而知天下。

28) 《鄭風·子衿》의 毛傳:古者教以詩樂，誦之歌之，弦之舞之。

은 음악에 正聲과 變聲의 구분이 있으며, 採詩者가 詩歌音樂의 正變을 구분하여 채록하였다. 『詩經』 詩歌의 음악성에 따라 正變을 구분하여 『詩經』 詩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내는 것과 음악사적 각도에서는 학술적 의의를 지니기 어렵지만 해석학의 각도에서 볼 때는 『詩』의 다양한 해석공간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sup>29)</sup> 『시경』의 『풍』과 『아』의 정변은 점차 『풍』과 『아』 뿐만 아니라 시경전체를 정변으로 나누게 되었다. 또 정치사회적 해석에서 음악적·문학적 해석으로 변해갔다. 정변의 개념은 올바름의 시작점이자 귀착점과 회복가능한 점에서 점차 변하여 포폄하게 되었다. 후대에 變의 개념을 점차 失正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正과 變의 개념을 인식할 때 褒貶抑揚이 뜻이 생기게 되었다. 正은 正宗、正體、正格이라 인식하고, 讘은 別體、旁流、變格이라 여기게 되었다. 이런 관점은 시 뿐만 아니라 詞學論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詞體의 風格에 대한 正變의 논쟁이 시작되어 청대에는 詩뿐만 아니라 詞도 정변으로 구분하였다.<sup>30)</sup> 정변설의 논술은 점차 분분해졌고<sup>31)</sup>, 清代에는 시경의 해석을 더욱 다양하게 하기 시작했고, 고증학적 연구가 성행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매우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정변의 구분이 필요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3. 鄭玄의 『詩』 正變解釋 具體化

정현은 『箋』을 지을 때 『序』의 詩旨를 따랐고, 『毛傳』과 같은 주석방식에 자세한 해석을 더 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毛詩』 해석과 비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正變을 구분했으며, 또 『毛詩』 해석으로부터 『箋』 해석으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현의 正變說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드러내보려고 한다. 『箋』 외에 『모시정의』에 남아있는 정현이 『시』의 대해 언급한 『시보』·『육예론』과 ‘예’에 대한 注 등을 참고하여 볼 것이다.

#### 1) 正-正風正雅-正經

정현은 『周禮·春官·大師』注에서 『풍』은 賢聖 治道의 남은 교화이고, 『雅』는 바름이니 지금의 바름을 말하여 후세의 법으로 삼게 한 것이다. 『頌』은 詩이니 容이다. 지금의 덕을 외워서 널리 찬미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2)</sup> 정현의 정변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말은 올바름이고 후세의 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왕도가 흥한 것이니 예의와 정교가 잘 되어 각 제후국과 세가들이 하나의 풍속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풍정아』라는 것은 정치가 잘된 시기에 지어졌고 그것을 읊은 시이다.

##### (1) 『正風』

29) 김수경, 「<풍><아>정변론의 발생 전개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논총』, 제60집, 2013.

30) 신현석, 「清代 詞論 中 正變論 研究」, 『중국인문과학』, 제48집, 2011.

31) 楊慎 《胡廣論詩》: “然正變雲擾，而剽襲雷同；比興漸微，而風騷稍遠。

32) “風，言賢聖治道之遺化。雅，正也，言今之正者，以爲後世法。頌之言，誦也容也，誦今之德，廣以美之。”

『정풍』은 『주남』의 11편의 전부와 『소남』의 14편 전부이고, 총 25편이다.<sup>33)</sup> 『주남』과 『소남』이 『정풍』이 된 이유를 『周南召南普』에서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주남』과 『소남』이 『풍』의 ‘정경’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주나라 왕실 선왕을 가송한 것과 西周시기의 盛世한 시를 시의 정경이라고 한다.

“「관저」는 후비의 덕이다. 『국풍』의 첫 작품이다. 소위 천하에 올바른 풍을 일으켜서 부부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작품이다. … 「관저」부터 「인지」까지의 교화는 왕자의 풍이 므로 주공과 관련된다. 남은 교화가 북으로부터 남으로 퍼진 것을 말한다. 「작소」로부터 「추우」까지의 은덕은 제후의 풍으로 선왕의 교화한 바이므로 소공과 관련된다. 周南과 召南은 정시의 도리이며 왕화의 기본이다. 「관저」『모시서』(「關雎」, 后妃之德也。風之始也, 所以風天下而正夫婦也。故用之鄉人焉, 用之邦國焉。風, 風也, 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然則「關雎」、「麟止」之化, 王者之風, 故系之周公。南, 言化自北而南也。「鵲巢」、「駉虞」之德, 諸侯之風也。先王之所以教, 故系之召公。周南、召南, 正始之道, 王化之基。)”

“북으로부터 남으로 퍼졌다는 것은 그 교화가 기주로부터 강수와 한수 지역까지 미친 것을 말한다. 선왕은 태왕과 왕계를 가리킨다. 「관저」『箋』(從北而南, 謂其化從岐周被江漢之域也。先王, 斥太王、王季。)”

“성인의 교화를 받은 것을 周南이라 하고, 현인의 교화를 받은 것을 召南이라 하니, 주공과 소공의 덕의 교화가 기산으로부터 남쪽 나라에 행해진 것이다. 마침내 그 나머지 시를 벼렸으니, 이것이 風의 정경이 됨을 말한다. 문왕이 후비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게 미쳐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 때문에 周南과 召南의 시가 후비와 부인의 덕을 첫머리로 삼고, 「린지」와 「추우」를 끝으로 삼았으니, 후비와 부인에게 이러한 덕이 있음을 말하여 그 군자를 도와 모두 공을 이루어 아름다운 상서를 얻음에 이를 수 있었음을 흥한 것이다. 『周南召南普』(其得聖人之化者 謂之周南 得賢人之化者 謂之召南 言二公之德教 自岐而行於南國也。乃棄其餘 謂此爲風之正經…文王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是故 二國之詩 以后妃夫人之德爲首 終以麟趾駉虞 言后妃夫人有斯德 興助其君子 皆可以成功 至于獲嘉瑞)”

왕자의 풍인 성인의 교화가 『주남』이고, 제후의 풍인 현인의 교화가 『소남』이다. ‘남’ 자를 붙인 이유는 주공과 소공을 위주로 찬미한 것이 아니고, 문왕의 교화를 노래한 시이기 때문이다. 문왕의 교화가 남쪽에 미쳐서 盛國의 교화를 드러냈기 때문에 문왕의 시기에 지어진 시기는 나라가 흥할 수 있었다. 대를 이어진 후비의 내조가 있어 그 다

33) 周南: 關雎, 葛覃, 卷耳, 櫟木, 蠡斯, 桃夭, 兔罝, 荞蕡, 漢廣, 汝墳, 麟之趾. 召南: 鵲巢, 采蘋, 采蘋, 甘棠, 行露, 羔羊, 殷其雷, 擠有梅, 小星, 江有汜, 野有死麋, 何彼穠矣, 駉虞.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國風	正風
周南(11)	11
召南(14)	14
合計(25)	25

스림이 지극 함으로 『주남』의 시작을 후비의 덕인 「관저」, 『소남』의 시작을 부인의 덕인 「작소」로 감화됨을 명칭으로 하였다. 성왕이 다스릴때의 상서로운 정조인 「린지」와 「추우」로 마지막으로 한 것이다. 어진 마음을 짐승의 이름을 취해서 구별하고 비유한 것이다. 『주남』은 「관저」부터 「린지」까지 성인의 교화를 받은 것이다. 즉 「관저」는 천자와 후비의 관계를 읊은 시이다. 왕이 후비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게 미쳐서 후비의 덕을 첫머리로 삼고, 「린지」를 끝으로 삼아 후비의 덕이 있음을 말하여 그 군자를 도와 모두 공을 이루어 아름다운 상서를 얻음에 이른 것이다. 『소남』은 「작소」부터 「추우」까지 현인의 교화를 받은 것이다. 왕과 부인의 관계를 읊는 시이다. 천자가 후비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게 미쳐서 부인의 덕을 첫머리로 삼고, 「추우」를 끝으로 삼아 부인의 덕이 있음을 말하여 그 군자를 도와 모두 공을 이루어 아름다운 상서를 얻음에 이른 것이다. 후비가 아름다운 덕을 소유한 것이 문왕의 풍화의 시작임을 말한 것이므로 『정풍』이 되는 것이다.

### 『周南·關雎』

『주남』의 첫 번째 시인 「관저」 편의 『정전』에서 정현이 『모시서』의 시지에 따르고 『모전』에 보충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관저」는 후비의 덕이다. 『풍』의 시작이니, 천하를 교화하여 부부의 도리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에게도 쓰이며 제후국에도 쓰인다. 풍은 풍자이며 교화이니, 풍자로 감동시키고 교화로 변화시킨다. …그런즉 「관저」로부터 「린지」까지의 교화는 왕자의 풍이므로 주공과 관련된다. 남은 교화가 북으로부터 남으로 퍼진 것을 말한다. 「작소」로부터 「추우」까지의 은덕은 제후의 풍으로 선왕의 교화한 바이므로 소공과 관련된다. 『주남』과 『소남』은 정시의 도리이며 왕화의 기본이다. 이로써 「관저」는 즐거이 숙녀를 얻어 군자에게 짹 지우되 근심이 현숙한 여자를 등용하는 데 있어 색에 바짓지 않았으며, 요조숙녀를 애처로워하고 현숙한 인재를 그리워하되 선을 상하게 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이 「관저」의 뜻이다.<sup>34)</sup>

‘파악파악 짹을 부르는 물수리가 모래톱에 있구나. 『毛詩』(關雎鳩，在河之洲。)’

“후비가 군자의 덕을 기꺼워하여 화합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또한 색에 빠지지 않고 신중하고도 차분하여 짹을 찾는 물수리와 같은 분별이 있다. 그런 후에야 천하를 교화할 수 있으니, 부부가 분별이 있으면 부자가 친하고, 부자가 친하면 군신이 공경하고, 군신이 공경하면 조정이 바로 잡히고, 조정이 바로잡히면 왕의 교화가 이루어진다. 『毛傳』(后妃說樂君子之德，無不和諧，又不淫其色，慎固幽深，若關雎之有別焉，然後可以風化天下。夫婦有別則父子

34) 《關雎》，後妃之德也。《風》之始也，所以風天下而正夫婦也。故用之鄉人焉，用之邦國焉。風，風也，教也，風以動之，教以化之。…然則《關雎》、《麟止》之化，王者之《風》，故系之周公。南，言化自北而南也。《鵲巢》、《駉虞》之德，諸侯之《風》也。先王之所以教，故系之召公。先王，斥太王、王季。《周南》、《召南》，正始之道，王化之基。是以《關雎》樂得淑女以配君子，憂在進賢，不淫其色，哀窈窕，思賢才，而無傷善之心焉。是《關雎》之義也。

親，父子親則君臣敬，君臣敬則朝廷正，朝廷正則王化成。)”

“물수리라는 새가 암수의 정분이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음을 말한다.『鄭箋』(謂王雎之鳥雌雄情意至然而有別。)”

『모시서』에 선왕들이 이것으로써 부부의 도리를 다스리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고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고 풍속을 바꿨다고 말한다. 즉 부부유별을 통해서 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詩』의 첫 구의 짹을 부르는 물수리의 모습을 해석할때 『모전』과 『정전』은 후비가 『詩』의 물수리와 같은 분별이 있으므로 천하를 교화할 수 있다고 말 것이다. 부부의 도리를 다스리면 천하를 교화할수 있다는 것은 여러 유가문현중 『孟子』와 『예기·대학』에서도 볼 수 있다.

“순임금께서 이를 근심하시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다는 부자유친,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다는 군신유의,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다는 부부유별, 장유간에는 차례가 있다는 장유유서, 봉우간에는 믿음이 있다는 봉우유신이 이것이다. 요임금께서 말씀하기를 ‘수고로운 자를 위로하고 먼 데서 오려는 자를 오게 하며, 간사한 자를 바로잡아 주고 굽은 자를 폐주며, 부축하여 서게 하고 도와주어 행하게 하여 스스로 선한 본성(本性)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진작시켜 은혜를 베풀어주라.’고 하셨다.『맹자·등문공상』”<sup>35)</sup>

부부유별을 통해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고, 집안이 교화되면 나라 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집안을 교화하지 못하면서 〈나라〉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안을 〈다스리는 道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나라에 교화를 이룰 수 있다.”『예기·대학』

“옛날에 천하에 밝은 덕을 밝히려는 자는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家를 잘 다스려져야 한다. 그 가를 잘 다스리려면 그 몸을 닦는 것에 힘써야 한다.”『예기·대학』<sup>36)</sup>

『예기·대학』에서 말하듯이 일이 온 뒤에 지극한 것 <선악구분>을 알고, 지극한 것을 안 뒤에 생각이 정성스러워지고, 생각이 정성스러워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이고, 몸이 닦인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

35) 《孟子·滕文公上》“人有憂之，使契爲司徒，教以人倫：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放勳曰：‘勞之來之，匡之直之，輔之翼之，使自得之，又從而振德之。’”

36) 《禮記·大學》“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無之。故君子不出家而成教於國。”와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

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공평하게 다스려진다. 「관저」편 『정전』에서 왕의 교화는 부부관계부터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부부가 인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왕이 교화를 행한 것이 그 아내에서 시작되었으니, 이것을 풍교의 시작으로 삼아 천하의 백성을 풍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부부의 도를 바르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 (2) 『正雅』

『정아』는 『시경』의 『정소아』와 『정대아』의 통칭이고, 『변아』와 상대적이다. 『정아』는 총 34편으로 『정소아』는 『녹명지십』의 10편과 『남유가어지십』의 6편으로 총 16편이고, 『정대아』는 『문왕지십』 10편과 『생민지십』 8편으로 18편<sup>37)</sup>이다.

『소아』에 「녹명」에서 「청청자아」까지 『정소아』<sup>38)</sup>인데 「소아·육월」의 『모시서』에서 말한 것은 22편이었으나 그 중 6편은 筏詩이다.<sup>39)</sup> 그러므로 『소아』의 『녹명지십』의 10편, 『남유가어지십』의 6편으로 16편<sup>40)</sup>이다. 『소아』는 연향을 베푼 것들이고, 연향을 통해 찬양이나 두려움을 억제하고 설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악은 춤의 최초 목적이며 일종의 정치수단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순수한 오락적 정취로서 마음을 넓히고 편안히 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춘추시대에 오자 음악과 무용이 빙객을 접대하는 일이 제후와 귀족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 예는 『좌전·장공21년』 정백이 주혜왕에게 연회를 베풀었고, 성공12년에 초왕이 각지에게 연회를 베풀었으며, 애공14년에 좌사가 식사때마다 종을 쳤다는 등의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처럼 악무가 갈수록 보편화되게 되자, 선비 계층의 향음주·향사 등의 예의에도 모두 음악으로 흥을 돋우게 된 것이다.<sup>41)</sup>

37)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	정아
소아(74)	16
대아(31)	18
합계(105)	34

38) 《小雅·六月》《箋》: “從此至〈無羊〉十四篇是宣王之變小雅。”

39) 「어려」편에서 3편, 그 외 3편은 「남유가어」편에서 筏詩의 설명볼 수 있다. 小雅가 다 폐기되면 사방의 오랑캐가 침범하여 중국이 微해진다고 말한다. 22개의 시편이 폐기되면 어떻게 되는지 각기 설명하였다. 「육월」편 모시서에서 언급한 小雅는 「鹿鳴」, 「四牡」, 「皇皇者華」, 「常棣」, 「伐木」, 「天保」, 「采薇」, 「出車」, 「杕杜」, 「魚麗」, 「南陔」, 「白華」, 「華黍」, 「由庚」, 「南有嘉魚」, 「崇丘」, 「南山有台」, 「由儀」, 「蓼蕭」, 「湛露」, 「彤弓」, 「菁菁者莪」이다.

《序》: <南陔>, 孝子相戒以養也。<白華>, 孝子之潔白也。<華黍>, 時和歲豐, 宜黍稷也。有其義而無其辭。《箋》: 此三篇者, 《鄉飲酒》、《燕禮》用焉, 曰“笙入, 立于縣中, 奏<南陔>、<白華>、<華黍>”是也。孔子論《詩》“雅頌各得其所”時俱在耳, 篇第當在于此。遭戰國及秦之世而亡之, 其義則與衆篇之義合編, 故存。至毛公為《诂訓傳》, 乃分衆篇之義, 各置于其篇端雲。又闕其亡者, 以見在為數, 故推改什首, 遂通耳, 而下非孔子之舊。《序》: <由庚>, 萬物得由其道也。<崇丘>, 萬物得極其高大也。<由儀>, 萬物之生各得其宜也。有其義而無其詞辭。《箋》: 此三篇者, 《鄉飲酒》、《燕禮》亦用焉, 曰: “乃閭歌「魚麗」, 笙<由庚>; 歌<南有嘉魚>, 笙<崇丘>; 歌<南山有臺>, 笙<由儀>。”亦遭世亂而亡之。《燕禮》又有笙歌「鹿鳴」, 下管<新宮>。<新宮>亦詩篇名也, 辭義皆亡, 無以知其篇第之處。

40) <鹿鳴>, <四牡>, <皇皇者華>, <常棣>, <伐木>, <天保>, <采薇>, <出車>, <杕杜>, <魚麗>, <南有嘉魚>, <南山有臺>, <蓼蕭>, <湛露>, <彤弓>, <菁菁者莪>.

41) 許進雄 지음 흥희 옮김, 『중국고대사회-문화와 인류학의 투시』, 동문선, 1998.p.417-418.

## 『小雅·天保』

정현은 「천보」 편에 「녹명」부터 「별목」까지 후세에 모범이 됨이므로 군주가 신하에게 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정소아』를 군주가 신하에게 내린 것과 신하가 군주에게 보답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답한 것이다. 군주가 능히 아랫사람에게 내려 선정을 이루니, 신하도 능히 미덕을 군주에게 돌려 윗사람에게 보답하였다. 『모시서』(「天保」, 下報上也。君能下下以成其政, 君能歸美以報其上焉。)”

아랫사람에게 내렸다는 것은 「녹명」부터 「별목」까지가 모두 군주가 신하에게 내린 바임을 말한다. 신하도 또한 마땅히 왕에게 미덕을 돌려 군주의 존엄을 드높이고 축복을 기원하여 그 노래에 보답해야 한다. 『정전』(下下, 謂「鹿鳴」至「伐木」, 皆君所以下臣也。臣亦宜歸美于王, 以崇君之尊而福祿之, 以答其歌。)”

『정전』은 군주가 신하에게 내린 것과 신하가 군주에게 보답한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녹명」부터 「별목」까지 후세에 모범이 됨이므로 군주가 신하에게 내린 것이다. 42) 「천보」부터 「청청자아」까지 신하가 군주에게 보답한 것이다. 43) 「천보」 이상은 「녹명」으로부터 「천보」 까지의 6편을, 「채미」 이하는 「채미」로부터 「체두」 까지의 3편을 가리킨다. 憂勤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이상 9편의 시를 말하고, 逸樂에서 마쳤다는 것은 마지막 이 시를 말한다.

## 『小雅·魚麗』

『정소아』에서 유일하게 「여려」 편만 찬미하였다.

“만물이 풍성하여 예물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을 찬미하였다. 문왕과 무왕이 「천보」 편 이상의 시로써 중국 안을 다스리고 「채미」 편 이하의 시로써 중국 밖을 다스렸으니, 우려하여 힘쓰는 것에서 시작하여 편안하게 즐기는 것에서 마쳤다. 그러므로 만물이 풍성하여 그것으로 신명께 고할 수 있었음을 찬미하였다. 『모시서』(美萬物盛多能備禮也。文武以《天保》以上治內, 《采薇》以下治外, 始于憂勤, 終于逸樂, 故美萬物盛多, 可以告于神明矣。)”

42)《鹿鳴》，燕群臣嘉賓也。既飲食之，又實辟帛筐籠，以將其厚意，然後忠臣嘉賓得盡其心矣。/《四牡》，勞使臣之來也。有功而見知則說矣。/《皇皇者華》，君遣使臣也。送之于禮樂，言遠而有光華也。/《常棣》，燕兄弟也。闵管、蔡之失道，故作《常棣》焉。/《伐木》，燕朋友故舊也。自天子至于庶人，未有不須友以成者。親親以睦，友賢不棄，不遺故舊，則民德歸厚矣。

43)《天保》，下報上也。君能下下以成其政，君能歸美以報其上焉。/《采薇》，遣戍役也。文王之時，西有昆夷之患，北有獮狁之難，以天子之命，命將率，遣戍役，以守衛中國。故歌《采薇》以遣之，《出車》以勞還，《杕杜》以勤歸也。/《出車》，勞還率也。/《杕杜》，勞還役也。/《魚麗》，美萬物盛多能備禮也。文武以《天保》以上治內，《采薇》以下治外，始于憂勤，終于逸樂，故美萬物盛多，可以告于神明矣。/《南有嘉魚》，樂與賢也。太平君子至誠，樂與賢者共之也。/《南山有台》，樂得賢也。得賢則能為邦家立太平之基矣。/《蓼蕭》，澤及四海也。/《湛露》，天子燕諸侯也。/《彤弓》，天子錫有功諸侯也。/《菁菁者莪》，樂育材也。君子能長育人材，則天下喜樂之矣。

정현은 『모시서』의 詩旨에 따라 이 시는 문왕·무왕 시대에 지어진 제례용의 노래라고 여겼다. 『모전』에서 『모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태평하여 만물이 풍족하여 마구잡이로 잡지 않는 욕심내지 않은 자연스러운 옛날을 설명했다. 태평해야 만물이 번성할 수 있다는 기록은 『예기·왕제』 편44)에서도 볼 수 있다.

“물고기가 통발에 걸리니 자가살와 모래무지로구나. 『毛詩』 (魚麗于罶, 鰐鱉。)”

“태평해진 이후에야 미물도 번성하니, 취함이 때에 맞고 도리에 맞으면 만물이 풍족하지 아니함이 없다. 옛날에는 찬바람이 불지 않고 날이 세차지 않으면 불을 놓지 않았으며, 초목에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도끼를 산림에 들이지 않았다. 승냥이가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가 된 후에야 사냥을 하였고, 수달이 물고기를 제물로 바칠 때가 된 후에야 고기잡이를 하였고, 매가 새들을 공격할 때가 된 후에야 그물을 설치하였다. 이 때문에 천자는 짐승을 한꺼번에 몰아 사냥하지 않았으며 제후는 짐승의 무리를 덮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새끼를 잡지 않고 알을 쑤하지 않았으며, 사는 사방을 모조리 막아놓고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으며, 서인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물눈이 네 치가 넘어야 못이나 어랑에 넣었다. 그러므로 산이 벌거벗지 않고 뜯어놓지 않아 메마르지 않아 짐승과 물고기들이 다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였다. 『모전』(太平而後微物衆多, 取之有時, 用之有道, 則物莫不多矣。故者不風不暴不行火, 草木不折, 不操斧斤, 不入山林, 獵祭獸然後殺, 獵祭魚然後漁, 鷹隼擊然後罿羅設。是以天子不合圍, 諸侯不掩群, 大夫不麌不卵, 士不隱塞, 庶人不數罟。罟必四寸, 然後入澤梁。故山不童, 澤不竭, 鳥獸魚鼈皆得其所然。君子有酒, 旨且多。)”

『說苑』에서도 직분에 따라 도리에 맞으면 만물이 풍요롭고 평안해진다고 설명했는데, 문왕과 무왕이 중국 밖 만물까지 평안하게 한 것이므로 찬미한 것이라고 하였다.<sup>45)</sup>

「문왕」에서 「부예」까지는 『정대아』이다. 『대아』의 『문왕지십』 10편과 『생민지십』 8편으로 총 18편<sup>46)</sup>이다.

### 『大雅·文王』

『대아』의 첫 번 째편인 「문왕」의 『모시서』에서 ‘문왕이 천명을 받아 주를 일으켰다. (文王受命作周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명을 받았다는 것은 천명을 받아 천하에 왕도를 행하고 주 나라를 바로세웠다. (受命, 受天命而王天下, 制立周邦。)”라고 하였다. 『詩』의 첫 구의 ‘주에 복종함은 천명이 무상하기 때문이네. (侯服于周, 天命靡常。)’ 아

44) 《禮記·王制》: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 一爲乾豆二爲賓客 三爲充君之庖 無事而不田 曰不敬 田不以禮 曰暴天物天子不合圍 諸侯不掩群 天子殺則下大綏 諸侯殺則下小綏 大夫殺則止佐車 佐車止則百姓畋獵 獵祭魚 然後漁人入澤梁 鳩化爲鷹 然後設罿羅 草木零落 然後入山林 昆蟲不蟄 不以火田 不麌不卵 不(夭妖)[妖夭] 不覆巢)

45) 《說苑·修文》卷19: “此皆聖人在上 君子在位 能者在職 大德之發者也 是故臯陶爲大理平 民各服得其實 伯夷主禮 上下皆讓 僉爲工師 百工致功 益主虞 山澤辟成 棗主稷 百穀時茂 契主司徒 百姓親和 龍主賓客 遠人至 十二牧行 而九州莫敢僻違 禹。)”

46) 文王大明,縣,棫樸,旱麓,思齊,皇矣,靈臺,下武,文王有聲,生民,行葦,既醉,鳬鷺,假樂,公劉,洞酌,卷阿

래에 『모전』과 『정전』의 설명을 보면 『정전』은 『모전』의 말에 보충설명함을 알 수 있다. 『모전』은 “천명의 무상함을 본 것이다. (則見天命之無常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무상하다는 것은 선하면 나아가게 하고 악하면 버리는 것이다. (無常者，善則就之，惡則去之。)”라고 하였다. 주나라에 복종한 것은 천명의 무상함을 본 것이다. 선하면 나아가고, 악이면 버리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주나라의 무상함을 따르는 이유는 천명을 받은 문왕이 주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공자도 『논어·팔일』에 “주나라는 하와 은, 두 왕조를 거울로 삼았으니 찬란하구나, 그 문화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sup>47)</sup>라고 했는데, 문왕이 스스로 예를 행하여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천하 국가의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평화로운 사회가 실현되는 것을 하늘이 복을 내려준 것이다.

### 『大雅·大明』

「大明」편을 보면 정현은 『詩』에 의거하고 『모전』의 설명과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 『모시서』에서 “문왕이 밝은 덕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이 다시 무왕에게 명하셨다. (文王有明德，故天復命武王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두 성인이 서로 밝은 덕을 이어 날로 커지므로 대명이라 한다. (二聖相承，其明德日以廣大，故曰大明。)”라고 하였다. 「大明」은 소아 소명과 상대된다. 『모시서』에서 “「小明」 대부분이 난세에서 벼슬함을 후회한 것이다. (大夫悔仕于亂世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편명을 「소명」이라 한 것은 유왕이 날로 총명함이 줄어 정사가 훼손되어 혼란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名篇曰小明者，言幽王日小其明，損其政事，以至于亂。)”라고 하였다. 『詩』의 첫구 ‘밝고도 밝은 위 하늘이 아래 땅을 비추어 임하시도다. (明明上天，照臨下土。)’ 아래에 『모전』의 설명은 없고, 『정전』의 설명만 있다. “밝고도 밝은 위 하늘은 왕 된 자는 마땅히 광명이 해가 중천에 있는 것과 같아야 함을 비유하였으며, 아래 땅을 비추어 임한다는 것은 왕 된 자는 마땅히 천하의 일을 살펴 다스려야 함을 비유하였다. 당시 유왕이 능히 그러하지 못함에 근거하였으므로 예로 들어 풍자하였다. (明明上天，喻王者當光明如日之中也。照臨下土，喻王者當察理天下之事也。據時幽王不能然，故舉以刺之。)”라고 하였다. 정현은 ‘대’의 의미를 문왕·무왕의 치덕과 관련시켰다. 『詩』의 첫 구 ‘친히 위수에서 맞으시네(親迎于渭。)’ 아래에 『모전』과 『정전』의 설명을 보면 『정전』은 『모전』의 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모전』은 “현인과 성인이 배필이 되었음을 말한다. (言賢聖之配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현녀가 성인과 배필이 되어 마땅함을 얻었으니, 예를 갖춘 것이다. (賢女配聖人得其宜，故備禮也。)” 정현은 『모시서』의 시지를 따랐지만 시 내용해석에서 문왕·무왕 두 성인을 『국풍』의 『주남』·『소남』과 같이 현녀가 성인과 짹하니 예를 갖춘 것이라고 하였다. 예라는 것은 군신의 도리를 밝히고, 부자의 정을 두텁게 하며, 형제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상하의 질서를 정제하며, 부부 사이를 구별한다. 이와 같이하니 평화로운 사회가 실현된 것<sup>48)</sup>이기 때문이다.

47) 《論語·八佾》:子曰“周監於二代，鬱鬱乎文哉！吾從周。

48) 《禮記·禮運》:以正君臣，以篤父子，以睦兄弟，以齊上下，夫婦有所。是謂承天之祐。

정현은 『정풍』과 『정아』의 59편으로 모두 문왕, 무왕, 성왕, 강왕의 시기의 시라고 말한다. 『주남』의 첫 번째 시는 「관저」, 『소남』의 첫 번째 시는 「작소」, 『소아』의 첫 번째 시는 「녹명」, 『대아』의 첫 번째 시는 「문왕」, 『주송』의 첫 번째 시는 「청묘」이다. 전부 문왕과 관련된 시이다. 『정풍정아』의 시편들은 문·무왕·성세의 작품으로 분류되고 해석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정현이 『시보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말했다.

“지극히 편안하고, 지극히 즐거워하고 정사가 화평하다. 『대아』의 처음은 「문왕」 시로 부터 시작하여 「문왕유성」 시에 이르기까지, 성대하고 높음에 의거하여 천명에게로 그 근원을 미루어갔으며, 위로는 조상들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였다.(盛德之隆, 大雅之初, 起自《文王》, 至于《文王有声》, 据盛隆而推原天命, 上述祖考之美。)”<sup>49)</sup>

정사가 밝고, 거처가 편안하며, 예가 제정된 때는 주공이 악을 지어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난 시기이다. 이는 법이 될만한 것을 들어낸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을 따르고자 한 것이다.

## 2) 變-變風變雅

『변풍변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현의 『시보서』에 있다.

“공자께서 의왕과 이왕때의 시부터 진나라 영공의 음란시를 채록하셨고, 『변풍변아』라 하였다.『詩普序』(故孔子錄懿王夷王時詩訖於陳靈公淫亂之事謂之變風變雅) ”

정현은 공자가 이왕때부터 진영공때의 음란시를 채록한 것이 『변풍변아』라고 말한다. 『변풍변아』가 지어진 시기는 이왕<sup>50)</sup>때부터 진나라 영공<sup>51)</sup>까지이다. 『변풍』을 지은 자 마음이 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변풍』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변풍이 처음 만들어지니, 변풍을 지은 작자들은 각각 마음을 상한 것이 있다.”『邶風衛詩普序』<sup>52)</sup>

‘風’은 ‘雅’와 함께 각각 한 사람이 지은 것이니, ‘風’은 ‘一國之事繫一人’이라 하였으니, ‘雅’도 천하의 일이 한 사람의 뜻에 관계되는 것이다. ‘雅’는 ‘言天下之事’라 하여 한 사람이 천하

49) 《毛詩正義》卷九·九之一

50) 《禮記·郊特牲》: 觀禮, 天子不下堂而見諸侯。下堂而見諸侯, 天子之失禮也, 由夷王以下。

51) 《說苑·君道》: 陳靈公行僻而言失, 泄冶曰: “陳其亡矣! 吾驟諫君, 君不吾聽而愈失威儀。夫上之化下, 猶風靡草, 東風則草靡而西, 西風則草靡而東, 在風所由而草爲之靡, 是故人君之動不可不慎也。夫樹曲木者惡得直景, 人君不直其行, 不敬其言者, 未有能保帝王之號, 垂顯令之名者也。《易》曰: ‘夫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 出其言不善, 則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於身, 加於民; 行發乎邇, 見乎遠。言行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 君子之所以動天地, 可不慎乎?’天地動而萬物變化。《詩》曰: ‘慎爾出話, 敬爾威儀, 無不柔嘉。’此之謂也。今君不是之慎而縱恣焉, 不亡必弑。”靈公聞之, 以泄冶爲妖言而殺之, 後果弑於徵舒。

52) 變風始作, 作者各有所傷

의 일을 말함을 이르니, ‘風’도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일을 말한 것이다. 序에서 역순으로 글을 서술한 것은 변갈아 말한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鄭志』에 張逸이 “일찍이 들으니 ‘한 사람이 시를 지었다.’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니, 鄭玄이 “시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이지만 취한 뜻은 한 나라의 일이다. ‘變雅’는 王政의 잘잘못을 풍자하고 풍속의 쇠미함을 안타까이 여겨 근심한 것은 넓지만 한 사람의 뜻에서 발현된 것이다.” 하였다. 이 말과 같다면 ‘風’과 ‘雅’가 지어짐이 모두 시인 한 사람의 말일 뿐이지만, 한 사람이 찬미하면 한 나라가 모두 찬미하고 한 사람이 풍자하면 천하가 모두 풍자하는 것이다. 『毛詩正義·疏』 53)

“백성들을 근심하고 직무를 근심하며, 상제를 밝게 섬기면 칭송의 명성을 받게 되고 큰 복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여기셨다. 만약 이런 것을 어기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커다란 화가 이와 같다. 길흉이 생기고 근심이나 즐거움이 싹터 자라는 것은 그 같은 사실에서 이미 밝게 드러나니, 후왕의 거울을 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서 그친다.” 『詩普序』 (以爲勤民恤功 昭事上帝 則受頌聲 弘福如彼 若違而弗用 則被劫殺 大禍如此 吉凶之所由 憂娛之萌漸 昭昭在斯 足作後王之鑒 於是止矣)

『국풍』의 순서기준은 공영달이 말한 것과 같이 먼저 봉해진 것의 善否를 추적하고 그 시의 美惡을 참작했다. 그 당시 정사의 득실을 징험해보고 그 나라의 大小를 살고하였다. 순서의 마땅한 것을 짐작하여 그 순서로 삼았을 것이다. 泰·庸·위는 상나라 주왕의 경기 천리 안에 있고 『폐풍』의 「백주」가 지어진 시기는 이왕때이다. 위나라는 강숙이 남겨 준 공적과 무송의 훌륭한 덕이 있었으며, 어머니가 같은 아우로서의 배경과 주나라에 들어가 이룬 공로가 있었다. 문공은 멸망한 나라를 다시 부흥하고 초구로 옮겨 다시 부강하게 하였으며 영토가 넓은데다 시도 이른 시기에 지어졌으므로 『변풍』의 수편으로 삼은 것이다.<sup>54)</sup>

『변풍』은 시경의 『국풍』 중 『폐풍』에서 『빈풍』까지 13국의 작품을 가리킨다. 『풍』의 정풍인 『주남』과 『소남』을 제외한 『폐풍』부터 『빈풍』까지 『변풍』이며, 총 135편<sup>55)</sup>이다. 『변풍』에서 찬미나 풍자를 설명한 것으로 『鄭風·緇衣』와 『王风·揚之

53) 《毛詩正義·疏》:言天下之事，亦謂一人言之，詩人摠天下之心，四方風俗，以爲己意，而詠歌王政，故作詩道說天下之事，發見四方之風。所言者，乃是天子之政，施齊正於天下，故謂之雅，以其廣故也。風之與雅，各是一人所爲，風言一國之事繫一人，雅亦天下之事繫一人。雅言天下之事，謂一人言天下之事，風亦一人言一國之事。序者，逆順立文，互言之耳。故志張逸問“嘗聞一人作詩，何謂。”答曰“作詩者，一人而已，其取義者，一國之事。變雅則譏王政得失，閔風俗之衰，所憂者廣，發於一人之本身。”如此言，風雅之作，皆是一人之言耳，一人美，則一國皆美之，一人刺，則天下皆刺之。

54) 《毛詩正義·關雎·疏》 참고.

55) 邶风:柏舟,綠衣,燕燕,日月,終風,擊鼓,凱風,雄雉,匏有苦葉,谷風,式微,旄丘,簡兮,泉水,北門,北風,靜女,新臺,二子乘舟.鄘风:柏舟,牆有茨,君子偕老,桑中,鴟之奔奔,定之方中,蝨棘,相鼠,干旄,載馳.卫风:淇奥,考槃,碩人,氓,竹竿,芄蘭,河廣,伯兮,有狐,木瓜.王风:揚之水,中谷有蓷,爰爰,葛藟,采葛,大車,丘中有麻.郑风:叔于田,大叔于田,清人,羔裘,遵大路,女曰鶴鳴,有女同車,山有扶蘇,蕡兮,狡童,褰裳,丰,東門之墪,風雨,子衿,揚之水,出其東門,野有蔓草,溱洧.齐风:鶴鳴,還,著,東方之日,東方未明,南山,甫田,廬令,敝笱,載驅,猗嗟.魏风:葛履,汾沮洳,園有桃,陟岵,十畝之間,伐檀,碩鼠.唐风:蟋蟀,山有樞,揚之水,椒聊,綢繆,杕杜,羔裘,鶡羽,無衣,有杕之杜,葛生,采芑.秦风:車鄰,駟騮,小戎,蒹葭,終南,黃鳥,晨風,無衣,渭陽,權輿.陳风:宛丘,東門之枌,衡門,東門之池,東門之楊,墓門,防有鵲巢,月出,株林,澤陂,桧风:羔裘,素冠,隰有苌楚,匪風,..曹风:蜉蝣,候人,鳲鳩,下泉.豳风:七月,鳲鳩,破斧,伐柯,九罭,狼跋.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水』가 있다.

### 『鄭風·緇衣』

『鄭風』의 21편 중에 15편을 미자로 설명했는데, 중 14편을 풍자하고 유일하게 찬미한 것이 「緇衣」다. 「緇衣」의 『모시서』에서 “무공을 칭송하였다. 부자가 모두 주의 사도가 되어 그 직분을 잘 수행하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 덕을 찬미하여 나라에 선행을 선도한 공로가 있음을 밝혔다. (美武公也。父子並為周司徒，善于其職，國人宜之，故美其德，以明有國善善之功焉。)”라고 하였다. 환공과 무공이 직분을 잘 수행해서 나라에 선행을 선도했기 때문에 그 덕을 찬미한 것이라고 하였고, 정현은 『모시서』의 詩旨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였다.

“치의가 알맞으니 해지면 내가 또 고쳐 주리라.” 『毛詩』(緇衣之宜兮，敝予又改為兮。)

“치는 검은 색이니, 경사가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의 정복이다. 개는 경이다. 덕망이 있는 군자는 마땅히 대대로 경사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毛傳』(緇，黑色，卿士聽朝之正服也。改，更也。有德君子，宜世居卿士之位焉。)”

“치의는 사조에 있을 때의 복장이다. 천자의 조복은 피변복이다.” 『鄭箋』(緇衣者，居私朝之服也。天子之朝服，皮弁服也。)”

“아버지는 무공의 아버지 환공을 일컫는다. 사도의 직책은 十二教를 관장한다. 선선이라 는 것은 잘 다스려 공이 있었다는 뜻이다. 정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환공과 무공이 사도의 관직에 있으니 그들에게 걸 맞는 직책을 제대로 얻었다.” 『鄭箋』(父，謂武公父桓公也。司徒之職，掌十二教。善善者，治之有功也。鄭國之人皆謂桓公、武公居司徒之官，正得其宜。)”

國風	篇數	變風
周南	11	0
召南	14	0
邶風	19	19
鄘風	10	10
衛風	10	10
王風	10	10
鄭風	21	21
齊風	11	11
魏風	7	7
唐風	12	12
秦風	10	10
陳風	10	10
檜風	4	4
曹風	4	4
豳風	7	7
合計	160	135

『정전』에서 환공이 사도가 되어 백성을 화합하게 했다는 기록은 『史記·鄭世家』<sup>56)</sup>에 보이고 사도가 십이교를 관장한다는 것은 『周禮·地官』<sup>57)</sup>에서 볼 수 있다. 『정풍』은 남녀상열로 보이는 내용이 많은데 공자가 일찍이 정나라 음악의 음란을 경계하였다.<sup>58)</sup> 『鄭風·緇衣』에 대해 『모전』과 『정전』 모두 『모시서』의 詩旨에 따라 설명을 더 했고, 무공이 직분을 잘 수행해서 나라에 선행을 선도했기 때문에 그 덕을 찬미하였다. 신하나 자식 등 직분을 지켰으니 아랫사람의 행위를 찬미함으로써 윗사람의 교화를 찬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王風·揚之水』

『王風』은 모두 10편으로 찬미한 것은 없고 풍자한 것 4편 중에 『王风·扬之水』가 있다. 『王风·扬之水』의 『모시서』를 보면 “평왕을 풍자하였다. 백성을 구휼하지는 않고 멀리 왕의 외가에 군대를 주둔시켜 수비하게 하니, 주나라 사람들이 왕을 원망하고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刺平王也。不撫其民，而遠屯戍于母家，周人怨思焉。)”라고 하였다. 아래에 『정전』은 “평왕의 은택이 백성에게 행해지지 않음을 원망하였으며, 오래도록 주둔하게 하여 돌아갈 수 없게 되니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였다. 주나라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제후들도 또한 사람을 보내 지키게 하였기 때문이다. 평왕의 외가인 신나라는 진나라와 정나라의 남쪽에 있어 강대국 초나라에 가까웠는데, 왕실이 미약하여 자주 침략을 당했다. 왕이 이 때문에 이를 지키게 하였다. (怨平王恩澤不行于民，而久令屯戍不得歸，思其鄉裏之處者。言周人者，時諸侯亦有使人戍焉。平王母家申國，在陳、鄭之南，迫近強楚，王室微弱而數見侵伐，王是以戍之。)”라며 『모시서』에 근거하여 평왕을 풍자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 『시』에 ‘거센 물은 지극히 빨라서 묶은 뺨나무를 띠워 보낼 수 없네. (揚之水，不流束薪。)’ 아래에 『모전』은 ‘홍’이라 표시하고, 글자의 뜻만 말하였다. 『정전』은 “거센 물은 지극히 빨라서 묶은 뺨나무를 띠워 보낼 수 없다. 평왕의 정교가 번거롭고 다급하여 은혜로운 명령이 아래 백성에게 행해지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激揚之水至遄迅，而不能流移束薪。兴者，喻平王政教烦急，而恩泽之令不行于下民。)”라고

56) 《史記·鄭世家》: 鄭桓公友者，周厲王少子而宣王庶弟也。宣王立二十二年，友初封于鄭。封三十三歲，百姓皆便愛之。幽王以為司徒。和集周民，周民皆說，河雒之間，人便思之。

57) 《周禮·地官司徒》: 惟王建國，辨方正位，體國經野，設官分職，以為民極。乃立地官司徒，使帥其屬而掌邦教，以佐王安擾邦國。教官之屬：大司徒，卿一人。小司徒，中大夫二人。鄉師，下大夫四人。上士八人，中士十有六人，旅下士三十有二人。府六人，史十有二人，胥十有二人，徒百有二十人。

58) 《論語·衛靈公》: 顏淵問為邦。子曰：「行夏之時，乘殷之輅，服周之冕，樂則韶舞。放鄭聲，遠佞人。鄭聲淫，佞人殆。」

《論語·揚貨》: 子曰惡紫之奪朱也，惡鄭聲之亂雅樂也，惡利口之覆邦家者。

《禮記·樂記》: 文侯曰敢問溺音何從出也？子夏對曰：「鄭音好濫淫志，宋音燕女溺志，衛音趨數煩志，齊音敖辟喬志；此四者皆淫於色而害於德，是以祭祀弗用也。《詩》云：『肅雍和鳴，先祖是聽。』夫肅肅，敬也；雍雍，和也。夫敬以和，何事不行？」

《荀子·樂論》: 墨子曰樂者、聖王之所非也，而儒者為之過也。君子以為不然。樂者，聖王之所樂也，而可以善民心，其感人深，其移風易俗。故先王導之以禮樂，而民和睦。夫民有好惡之情，而無喜怒之應則亂；先王惡其亂也，故修其行，正其樂，而天下順焉。故齊衰之服，哭泣之聲，使人之心悲。帶甲嬰胄，歌於行伍，使人之心傷；姚冶之容，鄭衛之音，使人之心淫；紳、端、章甫，舞韶歌武，使人之心莊。故君子耳不聽淫聲，目不視邪色，口不出惡言，此三者，君子慎之。

말하였다. 거센 물이 멜나무 끓음을 띄워 보내지 못하는 정경에 대해, 비록 평왕의 정교가 번거롭고 다급하지만 은혜로운 명령이 아래 백성에게 행해지지 않음을 나타냈다. 이는 흐르는 물에 멜나무 끓음을 움직이는 물상을 군주가 명령을 행하고 백성이 행한다고 억지로 비교한다고 볼 수 있는 의상이다. 『모시서』에 따라 평왕의 은택이 백성에게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였고, 오래도록 돌아갈 수 없으니 그리워하여 풍자함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자한 것이다.<sup>59)</sup>

### 『變雅』

『변아』는 시경의 『소아』 『대아』의 내용이 『정아』와 상대되고 일반적으로 주나라 정치가 쇠하고 어지러운 것을 반영한 작품이다. 『소아』의 「육월」부터 「하초불황」까지58편, 『대아』의 「민로」부터 「소민」까지 13편으로 총71편을 『변아』<sup>60)</sup>라고 한다. 『변소아』의 「육월」부터 「하초불황」까지58편<sup>61)</sup>이다. 정현은 『모시서』에 따라 『변풍변아』를 구분하였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따랐지만, 몇 편의 작품에서는 『모시서』의 설명과 다른데, 「십월지교」, 「우무정」, 「小旻(소민)」, 「소완」 4편이다. 정현은 『모시서』에서 유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려왕으로 고쳐말했다.

### 「十月之交」

「십월지교」의 『모시서』에서 “대부가 유왕을 풍자한 것이다. (大夫刺幽王也。)”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전』에는 “마땅히 여왕을 풍자한 것이라고 해야한다. 『고훈전』을 지을 때 그 편차를 옮겼으니, 그로 인해 이를 고치게 된 것이다. 「절남산」에서는 태사 윤씨가 공평하지 못하여 난리가 평정되지 못함을 풍자하였지만, 이편에서는 황보가 방자하여

59) 조혜진, <鄭玄『箋』의美刺說小考-『毛傳』과 비교>,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참고

60) 南有嘉魚之什:六月,采芑,車攻,吉日.鴻雁之什:鴻雁,庭燎,沔水,鶴鳴,祈父,白駒,黃鳥,我行其野,斯干,無羊.節南山之什:節彼南山,正月,十月之交,雨無正,小旻,小宛,小弁,巧言,何人斯,巷伯,谷風,蓼莪,大東,四月,北山,無將大車,小明,鼓鐘,楚茨,信南山.甫田之什:甫田,大田,瞻彼洛矣,裳裳者華,桑扈,鶯鶯,頌弁,車輦,青蠅,賓之初筵.魚藻之什:魚藻,采菽,角弓,菀柳,都人士,采綠,黍苗,隰桑,白華,綿蠻,瓠葉,漸漸之石,苔之華,何草不黃.生民之什:民勞,板,蕩之什:蕩,抑,桑柔,雲漢,崧高,烝民,韓奕,江漢,常武,瞻卬,召旻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雅	篇數	變雅
小雅	74	58
大雅	31	13
合計	105	71

61)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小雅	篇數	變小雅
鹿鳴之什	10	0
南有嘉魚之什	10	4
鴻雁之什	10	10
節彼南山	10	10
谷風之什	10	10
甫田之什	10	10
魚藻之什	14	14
合計	74	58

해와 달이 재앙을 알림을 꾸짖었으며, 정월에서는 포사가 주를 멸망시킴을 증오하였지만, 이편에서는 요염한 아낙이 극정일 때 바야흐로 지위에 처함을 질시하였다. 또한 유왕 때의 사도는 鄭桓公 友였으니, 이편에서 말한 번이 아닌지라, 이로써 그려함을 한다. (當為刺厲王。作《詰訓傳》時移其篇第，因改之耳。《節彼》刺師尹不平，亂靡有定，此篇譏皇父擅恣，日月告凶；《正月》惡褒姒滅周，此篇疾豔妻煽方處。又幽王時司徒乃鄭桓公友，非此篇之所雲番也，是以知然。)"라며 여왕을 풍자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시서』와 『모전』은 시의 배경을 유왕 시대로 보았다. 하지만 정현은 『모전』이 편차를 옮겼기 때문이고, 또 시의 인물이 유왕시대의 인물과 다르므로 여왕시대로 수정하였다. 62) 『소아·우무정』 역시 여왕의 시대이며, 비와 교령은 위에서 내리는 것인데 교령이 올바른 것이 없기 때문에 비를 비유한 것이라 하였다. 『소아·소민』은 풍자한 바가 「십월지교」나 「우무정」에 견주어 작기 때문에 제목을 「소민」이라고 하였다. 『정전』은 첫 구절이 '하늘이 고통과 위엄을(旻天疾威)'이지만 그럼에도 제목을 「민천」이 아니라 「소민」이라 한 이유를 앞편의 「십월지교」와 「우무정」과 비교하여 말하였다.

### 『小雅·小宛』

「소완」 『모시서』에 “대부가 유왕을 풍자하였다. (大夫刺幽王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이 시 역시 마땅히 여왕을 풍자했다고 해야 한다. (亦當為刺厲王。)”라고 하였다. 『시』에의 첫 구 ‘조그만 저 비둘기가 높이 날아 하늘에 다다른다. (宛彼鳴鳩，翰飛戾天。)’ 아래에 『모전』은 ‘흥’이라고 표시하고 글자 뜻과 함께 “소인배의 길을 가면서 고명한 공덕을 짊어졌으니 끝내될 수가 없다. (興也。行小人之道，責高明之功，終不可得。)”라고 하였다. 『정전』은 설명을 더하지 않았다. 다음 구인 ‘내 마음이 걱정스럽고 아파 옛 선인을 생각하였나니. (我心憂傷，念昔先人。)’ 아래에 『모전』은 “선인은 문왕·무왕이다. (先人，文、武也。)”라고 하였다. 『모전』은 선인을 문왕·무왕이라 한 것은 아래 구절인 ‘두 사람을 그리워하는가 (有懷二人)’의 두 사람의 가리키는 바를 말한 것이기도 하다. 『정전』이 『모전』의 아래에 설명을 더하지 않은 것은 『모전』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일 것이다. 뒤의 시구인 ‘각각 네 거동을 경건히 해라 (各敬爾儀，天命不又。)’에는 『모전』에서 글자 뜻만 말하고 『정전』은 “천명은 떠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군신은 각각 거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 (今女君臣各敬慎威儀，天命所去，不復來也。)”고 말한다. ‘들 가운데 콩이 있어 뜻 백성들이 그것을 캐네. (中原有菽，庶民采之。)’와 ‘자벌레 새끼를 나나니 벌이 기르네. (螟蛉有子，蜾蠃負之。)’에 정현은 콩잎이 들 가운데에서 자라니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자리도 일정한 국가가 없어 덕에

62) 《詩》: 皇父卿士，番維司徒，家伯維宰，仲允膳夫，聚子內史，蹶維趣馬，柶維師氏，豔妻煽方處。

《傳》: 豔妻，褒姒。美色曰豔。煽，熾也。

《箋》: 皇父、家伯、仲允，皆字。番、聚、蹶、柶，皆氏。厲王淫于色，七子皆用後嬖寵方熾之時並處位，言妻黨盛女渴行之甚也。敵夫曰妻。司徒之職，掌天下土地之圖、人民之數，冢宰掌建邦之六典，皆卿也。膳夫，上士也，掌王之飲食膳羞。內史，中大夫也，掌爵祿廢置、殺生予奪之法。趣馬，中士也，掌王馬之政。師氏，亦中大夫也，掌司朝得失之事。六人之中，雖官有尊卑，權寵相連，朋黨于朝，是以疾焉。皇父則為之端首，兼擅群職，故但目以卿士雲。

힘쓰는 자가 얻게 됨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舊生原中, 非有主也, 以喻王位無常家也, 勤于德者則得之。) 이는 무능한 왕의 백성을 유능한 자가 빼앗음을 비유한 것이니 잘 다스리는 자가 만민을 차지한 것이다. 또 ‘전전궁궁 薄은 얼음을 跛듯이 하네. (戰戰兢兢, 如履薄冰。)’ 아래에 “쇠퇴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혼인군자는 비록 죄가 없어도 두려워한 것과 같다. (衰亂之世, 賢人君子雖無罪, 有恐懼。)”라고 말했다. 『정전』은 군과 신의 도리를 말하며 군신이 직분을 지키지 못하니 빼앗기는 것이다. 이로써 선인을 문왕·무왕을 본받아 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變大雅』는 「민로」부터 「소민」까지 총 13편<sup>63)</sup>이다. 『변대아』의 첫 번째 「민로」와 마지막의 「소민」을 살펴보겠다.

### 『大雅·民勞』

「민로」 『모시서』에 “ 소 목공이 여왕을 풍자하였다. (召穆公刺厲王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여왕은 성왕의 칠세손이다. 당시 세금이 과중하고 부역이 잦아 인민이 고통스러웠으며, 경박하게 간악한 짓을 행하여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고 다수가 소수를 짓밟아 약탈과 상해를 일삼았으니, 그러므로 목공이 이를 꾸짖었다.(厲王, 成王七世孫也。時賦斂重數, 稅役煩多, 人民勞苦, 輕為奸宄, 強凌弱, 衆暴寡, 作寇害, 故穆公以刺之。)”라고 하였다. 『시』에 ‘백성들이 또한 수고로우니 아마도 잠시나마 편하게 해주겠지. 이 중국에 은혜를 베풀어 사방을 편안하게 하라(民亦勞止, 沂可小康。惠此中國, 以綏四方。)”라고 하였다. 『모전』은 “중국은 수도이며, 사방은 중국의 나라들이다. (中國, 京師也。四方, 諸夏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지금 주의 백성들이 피로하니, 왕이 아마도 그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하겠지? 경사 사람들을 친애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경사는 제하의 근본이다.(汔, 幾也。康、綏, 皆安也。惠, 愛也。今周民罷勞矣, 王幾可以小安之乎? 愛京師之人以安天下。京師者, 諸夏之根本。)”라고 하였다. 『시』에 ‘함부로 속이거나 빌붙지 말고 선량치 못한 이를 경계하며, 노략질 포악질을 일삼으면서도 오히려 명백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막아라(無縱詭隨, 以謹無良。式遏寇虐, 懈不畏明。)”라고 하였다. 『모전』은 “궤수는 남의 선행을 기만하고 남의 악행을 추종하는 자이다. 선량치 못한 이를 조심하라는 것은 작은 것을 삼가 큰 것을 징계함이다. (詭隨, 詭人之善、隨人之惡者。以謹無良, 慎小以憲大也。懈, 曾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왕이 정치를 행함에 남의 선행을 기만하여 기꺼이 행하지 않고 남의 악행을 따르는 자에게서 듣지 말고, 이로써 선량치 못한 이를 경계하라. 또한 이로써 노략질과 포악질을 일삼아 오히려 명백한 형벌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막아라. 당시에 이러한 자가 있음을 미워한 것이다.(謹, 猶慎也。良, 善；

63)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大雅	篇數	變大雅
文王之什	10	0
生民之什	10	2
蕩之什	11	11
合計	31	13

式，用；遏，止也。王為政，無聽于詭人之善不肯行而隨人之惡者，以此勅慎無善之人，又用此止為寇虐，曾不畏敬明白之刑罪者，疾時有之。)“라고 하였다.

「민로」 편은 백성들이 수고로우니 은혜를 베풀어 사방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내용을 『모시서』는 소목공이 여왕을 풍자한 시로 보았는데, 소목공은 「소아·상체」와 「서묘」에서도 언급된적이 있다. 목공은 소공석의 후예로 여왕에게 잘못된 정치를 직간하였으며, 여왕 축출 후에는 선왕을 옹립한 인물이다.<sup>64)</sup> 『정전』은 『모시서』에 따라 소목공이 풍자한 것으로 보고 『모전』의 남의 선행을 기만하고 남의 악행을 추종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것은 작은 것을 삼가 큰 것을 징계하라고 한 설명에 더하여 소목공이 풍자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시 세금이 과중하고 부역이 잦아 인민이 고통스러웠으며, 경박하게 간악한 짓을 행하여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고 다수가 소수를 짓밟아 약탈과 상해를 일삼았다. 목공이 노략질과 포악질을 일삼아 오히려 명백한 형벌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음을 미워해서 풍자한 것이다. 왕이 청치를 행함에 남의 선행을 기만하여 기꺼이 행하지 않고 남의 악행을 따르는 자에게서 듣지 말아야 한다. 이로써 선량치 못한 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 『大雅·召旻』

「소민」 『모시서』에 “ 범백이 유왕이 크게 패망함을 풍자하였다. ‘민’(旻)은 ‘고민하다(闵)’이니 천하에 소공과 같은 신하가 없음을 고민하였다. (凡伯刺幽王大壞也。旻，闵也。闵天下無如召公之臣也。)”라고 하였다. 『정전』은 “‘민(闵)’은 괴로워하다(病)”이고 제목 「소민」은 마지막 소공의 소와 첫장 민천의 민을 취한 것이라고 하였다. 「폐풍·백주」와 「빈풍·치효」의 전에도 “‘민(闵)’은 괴로워하다(病)”라고 하였다. 『시』에 ‘하늘이 고통주고 육박지르시어 하늘이 단단히 변고를 내리시니, 우리를 기근으로 앓게 하여 백성들이 다 떠돌고 달아나네. (旻天疾威，天篤降喪，瘡我饑僅，民卒流亡.)’라고 하였다. 『정전』은 “천은 왕을 가리킨다. 괴로운 유왕의 정치는 포학한 법령을 조금하게 행하고 혼란한 교령을 엄청나게 내리니, 과중한 세금을 말한다. 기근으로 나라 안을 병들게 하여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한다. (天，斥王也。疾，猶急也。瘡，病也。病乎幽王之為政也，急行暴虐之法，厚下喪亂之教，謂重賦稅也。)”라고 하였다. 『詩』에 ‘옛날 선왕께서 천명을 받으실 때에는 소공 같은 분이 계시어 날로 나라를 백리나 개척하시었는데 지금은 날로 나라를 백리씩 줄인다. (昔先王受命，有如召公，日辟國百裏。今也日蹙國百裏。)”라고 하였다. 『정전』은 “선왕께서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문왕·무왕시대를 일컫는다. 소공은 소 강공이다. 같은 이가 있다고 말한 것은 당시 어진 신하가 많아 다만 소공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금 유왕의 신하들이다. (先王受命，謂文王、武王時也。召公，召康公也。言有如者，時賢臣多，非獨召公也。今，今幽王臣。)”라고 하였다. 『모전』은 글자 해석만 하였고, 『정전』에서 문왕과 무왕시대에는 어진신하가 많았지만, 현재는 유왕의 신하들처럼 어질지 않다고 말한다. 『시』에 ‘아 서글프다. 오늘날의 사람들이여 옛것을 송상하지 않는 구

64) 《左傳·僖公24年》, 《史記·周本記》에 “ 소목공은 「소아·상체」와 「서묘」에서도 언급된적이 있다. 목공은 소공석의 후예로 여왕에게 잘못된 정치를 직간하였으며, 여왕 축출 후에는 선왕을 옹립한 인물이다.”라고 하였다.

나. (於乎哀哉，維今之人，不尚有舊。)’ 아래에 『모전』은 설명이 없고, 『정전』에서 ”슬프구나는 어진 사람을 송상하고 옛덕을 가진 신하를 임용하지 않아 장차 나라를 망치게 됨을 슬퍼함이다. (哀哉，哀其不高尚賢者，尊任有舊德之臣，將益喪亡其國。)”라고 하였다. 훌륭한 것은 따르지 않고, 훌륭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쓴다. 왕이 정치를 행하는 도리를 보면 천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 슬픈 것이다. 『모시서』는 범백이 유왕이 크게 폐망함을 풍자한 것이라고 여겼고, 『모전』은 글자 해석만 하였다. 『정전』은 『시』의 옛것을 송상하지 않는 것을 슬퍼한 내용을 『모시서』의 시지에 따라 문왕과 무왕시대에는 어진 신하가 많았지만, 현재는 유왕의 신하들처럼 어질지 않다. 그리하여 범백이 유왕이 옛것을 송상하지 않아 크게 폐망함을 풍자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 4. 結論

『毛詩序』가 『시』와 『풍』『아』『송』의 본질과 의미를 첫 번째로 연구했고<sup>65)</sup>, 시경의 작품을 ‘正變’을 통해 설명하기 시작한 가장 빠른 시기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모시서』에서 詩를 王道의 興衰에 따라 ‘正變’으로 구분했다. 이로써 盛世政治와 亂世政治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를 통해 政教의 得失을 알고 정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현은 『모시서』의 ‘正變’을 발전시켜 王道의 荷夷에 따라 세차별로 역사적 사실을 밝혀서 시를 해석하였다. 정변의 구분은 王道의 荷夷로부터 시작되고 荷夷의 시작인 『정풍정아』는 문왕과 관련된 시부터 시작한다. 이는 법이 될만한 것을 들어낸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을 따르고자 한 것이다. 쇠함의 시작인 『변풍변아』는 夷王때부터 진영공때의 시기의 시로 예의가 무너지고 정교의 시행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경계할만한 것을 들어낸 것이고, 그의 추악함을 풍자하고 바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 지배자가 그 노릇을 못한다면 백성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하는 지배자가 지배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up>66)</sup> 지배자의 도덕적 의지를 통해 천하가 구원가능하다고 보고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王道정치가 치국평천하의 실천적 구현에서 완성<sup>67)</sup>되기 때문에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

65) 劉毓慶·郭萬金,《從文學到經學-先秦兩漢詩經學史論》,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09. p.74

66) 《論語·顏淵》: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公曰：“善哉！信如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雖有粟，吾得而食諸？”“子欲善，而民善矣。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草上之風，必偃。”

《孟子·梁惠王上》:“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不違農時，穀不可勝食也；數罟不入洿池，魚鼈不可勝食也；斧斤以時入山林，材木不可勝用也。穀與魚鼈不可勝食，材木不可勝用，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養生喪死無憾，王道之始也。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數口之家可以無饑矣；謹庠序之教，申之以孝悌之義，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七十者衣帛食肉，黎民不饑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

《說苑·政理》:季孫問於孔子曰：“如殺無道，以就有道，何如？”孔子曰：“子爲政，焉用殺，子欲善而民善矣。君子之德，風也；小人之德，草也；草上之風必偃。”言明其化而已矣，治國有二機，刑德是也；王者尚其德而布其刑，霸者刑德並湊，強國先其刑而後德。夫刑德者，化之所由興也。德者，養善而進闢者也；刑者，懲惡而禁後者也；故德化之崇者至於賞，刑罰之甚者至於誅；夫誅賞者，所以別賢不肖，而列有功與無功也。故誅賞不可以繆，誅賞繆則善惡亂矣。夫有功而不賞，則善不勸，有過而不誅，則惡不懼，善不勸而能以行化乎天下者，未嘗聞也。《書》曰：‘畢協賞罰’，此之謂也。

67) 《孟子·盡心下》:“君子之守，修其身而天下平。”

도 바르게 하는 일을 강조한다.<sup>68)</sup> 천하에 도가 있으면 도덕이 표준이 되므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하늘의 이치라 말해야 할 것이다. <sup>69)</sup> 이익과 무력을 송상하는 패도정치를 배격하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왕도정치만이 지배자의 길이다. 성인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천하에 정치를 베풀 수 있는 지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왕도는 선진유학이 공통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추구해 온 사상이며, 유가의 궁극적 이상인 대동사회를 성취하는 근본적인 바탕이다. 漢儒는 유가 사상을 이어받아 통치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지어 시비를 판단하고 시를 이용하여 정변으로 간언한 것을 알 수 있다.

---

68) 《孟子·盡心上》:“有大人者，正己而物正者也。”

69) 《孟子·離婁上》:“天下有道，小德役大德，小賢役大賢；天下無道，小役大，弱役強。斯二者天也。順天者存，逆天者亡。齊景公曰：既不能令，又不受命，是絕物也。』涕出而女於吳。今也小國師大國而恥受命焉，是猶弟子而恥受命於先師也。如恥之，莫若師文王。師文王，大國五年，小國七年，必為政於天下矣。《詩》云：商之孫子，其麗不億。上帝既命，侯于周服。侯服于周，天命靡常。殷士膚敏，裸將于京。孔子曰：仁不可為眾也。夫國君好仁，天下無敵。今也欲無敵於天下而不以仁，是猶執熱而不以濯也。《詩》云：誰能執熱，逝不以濯？”

《荀子·脩身》:“以善先人者謂之教，以善和人者謂之順；以不善先人者謂之謗，以不善和人者謂之訛。是非非謂之智，非是是非謂之愚。傷良曰讒，害良曰賊。是謂是，非謂非曰直。竊貨曰盜，匿行曰詐，易言曰誕。趣舍無定謂之無常。保利棄義謂之至賊。多聞曰博，少聞曰淺。多見曰闊，少見曰陋。難進曰促，易忘曰漏。少而理曰治，多而亂曰耗。”